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비인 밤에 호올로

대낮에 체경(體鏡)*을 대하여 앓다.

슬픈 도시엔 일몰(日沒)이 오고

시계점 지붕 위에 청동비둘기

바람이 부는 날은 구구 울었다.

늘어진 고층 위에 서걱이는 갈대밭

열없는 표목(標木)*되어 조으는 가등(街燈)*

소리도 없이 모색(暮色)*에 젖어

얽은 베옷에 바람이 차다.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운다.

황혼을 좇아 네거리에 달음질치다.

모자도 없이 광장(廣場)에 서다.

- 김광균, '광장(廣場)'

나 피리를 가졌으면 한다

달은 가지 않고

달빛은 교교히* 바람만 더불고—

벌레소리도 죽은 이 밤

내 마음의 슬픈 가락에 울리어 오는

아! 피리는 어느 곳에 있는가

옛날에는

달 보신다고 다락에선 커다란 잔치

피리 부는 악관이 피리를 불면

고운 궁녀들 춤을 추었던

나도 그 피리를 가졌으면 한다

불 수가 없다면은

만져라도 보고 싶은

이 밤

그 피리는 어느 곳에 있는가.

- 천상병, '피리'

다 이 몸 삼기실* 제 입을 좇아 삼기시니 한평생 연분(緣分)이며, 하늘이 모를 일이런가 ㉡ 나 하나
 젊어 있고 임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 다시 없다 평생에 원(願)하기를 함께 살자

하였더니 늙어서 무슨 일로 홀로 두고 그리는가 엇그제 입을 모셔 광한전(廣寒殿)*에 올랐더니 그 동안 어찌하여 하계(下界)에 내려 오니 올 적에 빗은 머리 흐트러진 지 삼 년일세 연지분(鰐脂粉)* 있지만은 누구 위해 곱게 할꼬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 깃느니 한숨이요 흘리느니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有限)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하느구나 염량(炎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고 많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헤쳐 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 냉담한 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의 달이 쫓아 베개 밑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건어 놓고 공작(孔雀)*을 돌려 두니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턴고 ㉣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五色線) 풀어 내어 금자로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추시고 산호수(珊瑚樹) 지게 위에 백옥함(白玉函)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져 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어휘 풀이

- * 체경(體鏡): 몸 전체를 비추어 볼 수 있는 큰 거울.
- * 표목(標木): 어떤 것을 표지하기 위하여 세우는 말뚝, 꽃말.
- * 가등(街燈): 거리의 조명이나 교통안전, 또는 미관을 위하여 길가에 설치해 놓은 등.
- * 모색(暮色): 날이 저물어 가는 어스레한 빛.
- * 교교히: 달이 썩 맑고 밝게.
- * 삼기다: '생기게 하다'의 옛말. 태어나다, 만들어지다의 의미로 읽힌다.
- * 광한전(廣寒殿): 달 속에 있다는 가상의 궁전. 여기서는 임금이 사는 궁전을 뜻한다.
- * 연지분(鰐脂粉): 연지와 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염량(炎凉): 더위와 서늘함. 계절의 변화를 이른다.
- * 적설(積雪): 쌓인 눈.
- * 암향(暗香): 그윽이 풍기는 향기. 흔히 매화의 향기를 말한다.
- * 나위(羅幃): 얇은 비단으로 만든 장막 안.
- * 수막(繡幕): 수를 놓아 장식한 장막 안.
- * 부용(芙蓉): 연꽃을 그리거나 수놓은 방장(房帳).
- * 공작(孔雀): 공작새를 수놓은 병풍.
- * 원앙금(鴛鴦錦): 원앙새 무늬를 수놓은 비단.
- * 수품(手品): 솜씨.
- * 제도(制度): 격식.

0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 ②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 ③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대한 애상감이 드러나 있다.
- ④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 ⑤ 부드러운 어조로 대상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02 (가)를 시화(詩畵)로 만들려고 할 때, 그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시의 이미지를 살리되, 해가 조금 기운 '일몰' 때의 풍경을 그리는 것이 좋겠어.
- ② 빌딩 옥상에 조성된 '갈대밭'을 부각시켜, 자연과 문명의 느낌을 동시에 살리면 좋겠어.
- ③ 윗부분이 구부러진, 희미한 불빛의 가로등을 그려 놓으면 열없이 '조르는 가뭄'의 느낌이 살겠군.
- ④ '네거리'에 달음질치는 화자의 모습을 연상하려면 사거리 도로도 그림 한 편에 들어가야 해.
- ⑤ 저물어 가는 회색빛 '광장' 가운데에 서 있는 인물을 그리는 것이 좋겠군.

0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천상병의 시 중에는 단순한 구조를 지니면서, 순수하고 소박한 느낌을 표현한 작품이 많다. 그의 시는 현실에서 느끼는 괴로움을 담고 있지만, 비관에 빠지지 않는 자세를 보여 준다. 때로 시공간을 뛰어넘어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현실의 한계 안에 머무는 모습을 보인다.

- ① '피리를 가졌으면 한다 - 피리는 어느 곳에 있는가'의 전체 구조가 단순하게 반복되는군.
- ② '내 마음의 슬픈 가락에 울리어 오는'은 화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정서와 관련이 깊겠군.
- ③ '학관'과 '고운 궁녀들'은 화자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떠올린 대상이군.
- ④ '만져라도 보고 싶은'에서 자신의 소망을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는군.
- ⑤ 마지막 행을 고려할 때 시인의 염원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군.

0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 ② ㉠과 ㉡는 화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공간이다.
- ③ ㉠과 달리 ㉡는 화자가 자발적으로 찾아 나선 곳이다.
- ④ ㉡와 달리 ㉠에서는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에서 화자는 쓸쓸함을 느끼고, ㉡에서 화자는 황당함을 느낀다.

0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비교를 통해 화자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대조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관용적 표현을 써서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특정 소재를 사용하여 임에 대한 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자연물을 통해 임과 화자 사이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15-1강] p110

(가)

비인 방에 호울로
대낮에 체경(體鏡)을 대하여 앉다.

슬픈 도시엔 일몰(日沒)이 오고
시계점 지붕 위에 청동 비둘기
바람이 부는 날은 구구 울었다.

늘어진 고층 위에 서걱이는 갈대밭
열없는 표목(標木)되어 조으는 가등(街燈)
소리도 없이 모색(暮色)에 젖어

옅은 베옷에 바람이 차다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운다.

황혼을 쫓아 네거리에 달음질치다
모자도 없이 광장(廣場)에 서다.

- 김광균, '광장(廣場)'

시적 대상	• 도시에서 외롭게 방황하는 화자
화자의 상황	• 방안에서 외롭게 거울을 앞에 두고 있다. 황혼을 쫓아 광장으로 나온다.
반응/태도/정서	• 쓸쓸함과 외로움
핵심 시어	• 슬픈 도시 위의 청동 비둘기-화자의 외로움과 단절감을 심화 시킨다. • 마음 한구석에서 우는 벌레-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화자 내면의 목소리 • 광장-화자가 소통을 원하는 공간이나 사실은 비어버린 공간
이야기	• 호로 거울 앞에 앉았다. 도시는 외로웠고 인공의 것들이 가득한 듯보였다. 마음 속에서 어떤 열망이 일었다. 거리로 나와 광장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내가 의지할 곳은 없었다.
표현 상의 특징	•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감정 이입
주제	• 도시 속에서 느끼는 개인의 고독과 불안

(나)

피리를 가졌으면 한다

달은 가지 않고

달빛은 교묘히 바람만 더불고-

벌레소리도 죽은 이 밤

내 마음의 슬픈 가락에 울리어 오는

아! 피리는 어느 곳에 있는가

옛날에는

달 보신다고 다락에선 커다란 잔치

피리 부는 악관이 피리를 불면

고운 공녀들 춤을 추었던

나도 그 피리를 가졌으면 한다

볼 수가 없다면은

만져라도 보고 싶은

이 밤

그 피리는 어느 곳에 있는가.

- 천상병, '피리'

시적 대상	• 피리
화자의 상황	• 고요하고 외로운 밤에 피리를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함
반응/태도/정서	•
핵심 시어	• 피리-화자에게 흥겨움을 가져다 줄 물건
이야기	• 고요한 이 밤 즐거움을 주었던 피리를 가지고 싶다.
표현 상의 특징	• 평이하고 쉬운 시어의 사용 • 소박한 소망을 표현 • 반복을 통하여 정서 강조
주제	•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주는 피리를 소망함.

(다)

이 몸 사기실 제 입을 좇아 삼기시니 한평생 연분(緣分)이며, 하늘이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젊어 있고 **입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 다시 없다 평생에 원(願)하기를 함께
살자 하였더니 늙어서 무슨 일로 홀로 두고 그리는가 옛그제 **입을 모셔** **광한전(廣寒殿)**에 올랐
더니 그 동안 어찌하여 **하계(下界)**에 내려 오니 울 적에 빗은 머리 흐트러진 지 삼 년일세 연
지분(胭脂粉)있지만은 누구 위해 곱게 할꼬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
요 흘러느니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有限)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무시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하
는구나. **염량(炎涼)** 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고 많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해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 냉담
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의** 달이 좇아 베갯 말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입이신**
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입이 계신 데** 보내고저 입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려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
을 건어 놓고 공작(孔雀) 둘러 두니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턴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五色線) 풀어 내어 금자로 겨누어서 **입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
고 제도(制度)도 갖추시고 산호수(珊瑚樹) 지계 위에 백옥함(白玉函)에 담아 두고 입에게 보내
려고 입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누라서 찾아갈
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시적 대상	• 헤어진 입
화자의 상황	• 입과 헤어져 님을 그리워함
반응/태도/정서	•
핵심 시어	•
이야기	•
표현 상의 특징	• 계절의 변화를 통해 변하지 않는 그리움 드러냄 • 계절별로 사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사랑 표현함 • 화자 자신을 천상에서 하강한 선녀에 비유 • 대구, 비유, 과장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이 활용됨
주제	• 입에게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

[0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울이 고성(古城)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쳐.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짚* 두 뺨 우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江)에 씨레나무* 밀려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잊어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피로 가꾼 이삭에 참새로 날아가고
 ㉡ 곰처럼 어린 늑이 북극(北極)을 꿈꾸는데
 늑은이는 늑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의 밀고자(密告者)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유폐(幽廢)된 지역(地域)에서」

— 이육사, '초가'

나 우리야 우리끼리 하는 말로
 태어나면서도 넓디넓은
 평야 이루기 위해 태어났제
 아무데서나 푸룻푸룻 하늘로 잎 돌아내고
 ㉢ 아무데서나 버려져도 흙에 뿌리박았는기라
 먼 곳으로 흐르던 물줄기도 찾아보고
 날뛰던 송장메뚜기 잠재우기도 하고
 농부들이 흘린 땀을 거름삼기도 하면서
 우리야 살기는 함께 살았제
 오뉴월 하루별이 무섭게 익어서

처음으로 서로 안고 부끄러워 고개 숙였는기라
 우리야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충알받이 땅 지뢰밭에 알알이 씨앗으로 묻혔다가
 터지면 흩어져 이쪽 저쪽 움돌아
 우리나라 평야 이루며 살고 싶었제
 우리야 참말로 참말로 참말로

㉔ 갈라설 수 없어 이 땅에서 흔들리고 있는기라

- 하종오, '벼는 벼끼리 피는 피끼리'

다 나라에 못 잇을 것은 왜(倭)밖에 전혀 없다.

의관 문물을 이렇게나 더럽혔는고?

이 원수 갚지 못할까 칼만 갈고 있노라.

〈제3수〉

힘써 하는 싸움 나라 위한 싸움인가?

옷 밥에 묻혀 있어 할 일 없어 싸우는가?

아마도 그치지 아니하니 다시 어이하리.

〈제13수〉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움 말리소서.

공정하게 말리소서, 말리소서, 말리소서.

진실로 말리기만 말리시면 공평 태평하리이다.

〈제16수〉

이쪽 그르나 저편 그르나 그만 저만 던져 두고,

할 일을 하오면 그 아니 좋을손가?

할 일 하지 않으니 그를 서러워 하노라.

〈제18수〉

어허, 거짓 일이. 금은보화 거짓 일이.

장안(長安) 수많은 집에 누구 누구 지냈는고?

아아, 임진년(壬辰年) 티끌이 되니 거짓 일로만 여기노라. 〈제27수〉

㉔ 공명을 원치 않거든 부귀인들 바랄소냐?

초가 한 간에 괴로이 혼자 앉아

밤낮에 나라 시절 근심함을 못내 설워하노라.

〈제28수〉

- 이덕일, '우국가(憂國歌)'



어휘 풀이

* 말매나물: 말랭이. 2년초 봄나물의 일종.

* 모매꽃: 메꽃. 꽃은 연분홍, 뿌리와 잎은 식용임.

* 얼붙는다: 얼어붙는다.

* 술레판: '상기판'의 뜻으로 추정됨.

* 씨레나무: 홍수가 나서 쓸려 내리는 나무.

0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 드러나 있다.
- ③ (나)와 (다)는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자연 친화적 태도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화자의 무력감과 환멸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07 <보기 1>을 바탕으로 (가)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1 ••



이 퍼즐은 전체 그림을 그린 뒤 여러 개 조각으로 나누고, 조각 그림을 다시 끼워 맞추어 원래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다.

•• 보기 2 ••

- ㄱ. 1연의 '고향을 그린 묵화'는 위와 같은 퍼즐의 전체 그림에 해당하겠군.
- ㄴ. 고향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퍼즐을 구성하는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군.
- ㄷ. 조각 조각난 고향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욕심만 차리던 고향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군.
- ㄹ. 4연에 제시된 '강물'은 전체 그림을 양분하여 대치되는 상황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는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8 <보기>를 통해 (나)의 ‘벼’와 ‘피’를 이해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나)의 제목은 ‘벼는 벼끼리 피는 피끼리’인데, 다음과 같은 지식을 활용하면 이러한 제목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벼와 피는 모두 벼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 식물로, 농경 초기부터 함께 재배되었다.
- 벼와 피는 각지에 사는 우리 민족이 주식(主食)으로 애용해 왔다.
- 벼는 주로 평지의 논이나 밭에서 재배하며, 피는 주로 산간지나 북부 지방에서 재배했다.

- ① 일년생 초본 식물인 ‘벼’와 ‘피’는 짧은 기간에 얻은 큰 결실을 의미한다.
- ② 민족의 주식이 되는 ‘벼’와 ‘피’는 끈질긴 생명력을 내포하는 소재이다.
- ③ ‘벼’는 우리나라의 내부적 상황, ‘피’는 외부적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벼’는 화자가, ‘피’는 청자가 되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 ⑤ ‘벼는 벼끼리 피는 피끼리’라는 제목은 용도와 재배지에 따른 차이를 강조한다.

09 <보기>를 통해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다)의 작가인 이덕일(李德一)은 임진왜란 때 전과를 올린 의병장 출신으로, 광해군 때 병조좌랑까지 올랐으나, 후에 탄핵을 받아 삭직을 당했다. 고향에 돌아가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당시 국정에 대한 울분을 담은 연시조, ‘우국가(憂國歌) 28수’를 지었다. 이 노래는 당파 싸움에 대한 울분을 잘 드러내고 있어 ‘당쟁상심가(黨爭傷心歌)’, ‘당쟁비가(黨爭悲歌)’라고도 불린다.

- ① <제3수>에는 당쟁 때문에 유배를 당한 화자의 적개심이 드러나 있다.
- ② <제13수>에는 당쟁만 벌이는 신하들에 대한 개탄이 드러나 있다.
- ③ <제16수>의 청자는 당쟁을 멈추게 해야 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
- ④ <제27수>는 전란으로 인한 피해와 부귀의 덧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제28수>에는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의 분위기를 표현한다.
- ② ㉡: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암시한다.
- ③ ㉢: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속성을 드러낸다.
- ④ ㉣: 세파에 흔들리는 민중들의 괴로움과 절망을 형상화한다.
- ⑤ ㉤: 개인적인 영화를 앞세우지 않는 선비의 자세를 보여 준다.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웁이 고성(古城)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처

떡엄 떡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슬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江)에 씨레나무 밀려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잊어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피로 가꾼 이삭에 참새로 날아가고
 꿈처럼 어린 놀이 북극(北極)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의 밀고자(密告者)인 강물조차 얼어붙는다.

「유폐(幽廢)된 지역(地域)에서」

- 이육사, '초가'

시적 대상	• 피폐해진 고향의 모습
화자의 상황	•
반응/태도/정서	•
핵심 시어	•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처-피폐해진 고향의 모습 • 가시내/젊은이-먹을 것조차 없어서 빈 바구니를 들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 • 한겨울 밤-추위(유폐된 지역의 시련)
이야기	•
표현 상의 특징	• 감정의 절제 • 자연물을 이용해 부정적 상황을 표현함
주제	• 피폐해진 고향(농촌) 마을의 상황과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나)

우리야 우리끼리 하는 말로

태어나면서도 넓디넓은

평야 이루기 위해 태어났제

아무데서나 푸릇푸릇 하늘로 일 돌아내고

아무데서나 버려져도 흙에 뿌리박았는기라

먼 곳으로 흐르던 물줄기도 찾아보고

날뛰던 송장메뚜기 잠재우기도 하고

농부들이 흘린 땀을 거름 삼기도 하면서

우리야 살기는 함께 살았제

오늘월 하루별이 무섭게 익어서

처음으로 서로 안고 부끄러워 고개 숙였는기라

우리야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총알받이 땅 지뢰밭에 알알이 씨앗으로 묻혔다가

터지면 흩어져 이쪽 저쪽 읊돈아

우리나라 평야 이루며 살고 싶었제

우리야 참말로 참말로 참말로

갈라설 수 없어 이 땅에서 흔들리고 있는기라

- 하중오, '벼는 벼끼리 피는 피끼리'

시적 대상	• 벼의 삶
화자의 상황	•
반응/태도/정서	• 우리나라 평야가 갈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핵심 시어	• 우리-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벼 • 총알받이 땅 지뢰밭-분단과 전쟁의 국토
이야기	•
표현 상의 특징	• 벼로 의인화하여 정서를 표현함
주제	•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민중의 염원 • 사투리의 사용

(다)

나라에 못 잊을 것은 왜(倭)밖에 전혀 없다.

의관 문물을 이렇게나 더럽혔는고?

이 원수 갚지 못할까 칼만 갈고 잊노라.

<제3수>

- 왜에 대한 분노
- 왜적의 피해와 분노를 비유로 표현

힘써 하는 싸움 나라 위한 싸움인가?

옷 밥에 묻혀 있어 할 일 없어 싸우는가?

아마도 그치지 아니하니 다시 어리하리.

<제13수>

- 지속되는 당쟁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 싸움-임진왜란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움 말리소서.

공정하게 말리소서, 말리소서, 말리소서.

진실로 말리지만 말리시면 공평 태평하리이다.

<제16수>

- 당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태평성태에 대한 염원
- a-a-b-a 구조
- 공경의 태도를 드러냄

이쪽 그르나 저편 그르나 그만 저만 던져 두고,

할 일 할 하오면 그 아니 좋을손가?

할 일 하지 않으니 그를 서러워 하노라.

<제18수>

- 당파 싸움이 끝나기를 바램

어허, 거짓 일이. 금은보화 거짓 일이.

장안(長安) 수많은 집에 누구 누구 지냈는고?

아아, 임진년(壬辰年) 티끌이 되니 거짓 일로만 여기노라. <제27수>

- 전쟁의 폐허에 대한 안타까움

공명을 원치 않거든 부귀인들 바랄소냐?

초가 한 간에 괴로이 혼자 앉아

밤낮에 나라 지질근심함을 못내 설워하노라.

<제28수>

- 시절을 근심함

- 이덕일, '우국가(憂國歌)'